

논술고사 출제 의도 및 답안 (인문계열 I)

문항 1

[문항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세계 시민주의의 변화를 설명하고, 제시문 [나]의 옹정제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히에로클레스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30점]

문항 1 -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진술로 이루어진 제시문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현실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정확한 이해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문항 1 -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나) 자료 출처

| 교과서 내 | | | | | | |
|----------|---------|-------|------|----|---------|--------|
| 자료명(도서명) | 작성자(저자) | 발행처 | 발행연도 | 쪽수 | 관련 자료 | 재구성 여부 |
| 동아시아사 | 최현삼 외 | 금성출판사 | 2022 | 97 | 제시문 [나] | ○ |
| 동아시아사 | 김태웅 외 | 미래엔 | 2022 | 93 | 제시문 [나] | ○ |
| 동아시아사 | 이병인 외 | 비상교육 | 2022 | 95 | 제시문 [나] | ○ |
| 동아시아사 | 안병우 외 | 천재교육 | 2022 | 97 | 제시문 [나] | ○ |

| 교과서 외 | | | | | | |
|-------------|---------------------------------|----------|------|---------|---------|--------|
| 자료명(도서명) | 작성자(저자) | 발행처 | 발행연도 | 쪽수 | 관련 자료 | 재구성 여부 |
| EBS 수능특강 독서 | EBS | 한국교육방송공사 | 2023 | 39 | 제시문 [가] | ○ |
| 대의각미록 | 옹정제 지음 이형준, 최동철, 박윤미, 김준현 옮김 | 도서출판 b | 2021 | 138-139 | 제시문 [나] | ○ |

문항 1 -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EBS 수능특강 「독서」에 수록된 세계 시민주의에 관한 글이다. 고대 그리스의 디오게네스로부터 시작된 세계 시민주의는 초기 스토아학파를 거쳐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시민으로서 인류 전체를 위한 보편적 가치를 논하였다. 로마 시대의 스토아학파 철학자 히에로클레스는 로마에 대한 소속감을 강조하면서 연속적인 동심원 비유를 통해 가장 안쪽에 위치한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장 바깥쪽의 인류 일반으로 확장하였다.

제시문 [나]는 「동아시아사」 4종 교과서에 모두 수록된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옹정제는 금수로 취급받는 오랑캐라 하더라도 천명을 받고 인의를 알면 중원을 통치할 수 있다는 논리로 만주족의 중원 지배를 합리화하였다. 특히 태어난 곳을 근거로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한족 지식인의 편협한 인간관을 비판하고, 중심과 주변의 차별을 부정하였다.

본 문항에서는 우선 제시문 [가]에 제시된 세계 시민주의 관점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떤 특징과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정리해야 한다. 이어 제시문 [나]에 나타난 편협한 인간관의 배타성을 분석하고, 이를 제시문 [가]에 나타난 세계 시민주의와 비판적으로 대비시킬 수 있어야 완성도 높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제시문 [가]의 히에로클레스가 제시한 연속적인 동심원이 드러내는 중심과 주변의 구별이라는 모순을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

문항 1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1 | 제시문 [가]에 나타난 세계 시민주의의 변화상 정리 - 키니코스학파, 초기 스토아학파, 로마 시대의 스토아학파로 이어지는 세계 시민주의의 세 단계 변화를 포착하고 설명함. - 시대별로 제시된 세계 시민주의의 특징을 정리하고 그 변화의 흐름을 서술함. | 10점 |
| | 제시문 [나]에 나타난 옹정제의 관점을 정리하고, 이를 제시문 [가]의 히에로클레스의 주장과 대조하여 비판 - 태어난 지역의 차이만을 근거로 사람과 동물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옹정제의 관점을 서술함. - 히에로클레스가 제시한 연속적인 동심원 비유에서 로마에 대한 소속감을 전제로 중심과 주변의 거리가 발생하게 됨을 지적함. - 태어난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을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는 옹정제의 관점에서 볼 때 히에로클레스의 세계 시민주의가 모순과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서술함. | 15점 |
| |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 5점 |

문항 1 - 예시 답안

제시문 [가]에 나타난 세계 시민주의는 크게 세 단계의 변화를 거친다. 우선 키니코스학파와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주장한 세계 시민주의는 기존의 공동체나 관습을 초월하여 인간을 모두 세계 시민으로서 동등한 존재로 인식했다. 이어 초기 스토아학파는 이성을 가지

고 있는 모든 인간이 동료 시민으로서 기존의 공동체인 폴리스를 넘어서 인류 전체의 공동선을 추구했다. 마지막으로 로마 시대의 스토아학파는 로마에 대한 소속감과 애국심을 강조하며, 로마의 시민권을 온 인류로 확장하였다.

제시문 [나]의 옹정제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태어난 지역으로만 구별하는 편협한 인간관을 통렬히 비판한다. 태어난 곳이 중원이라고 해서 모두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변경에서 태어난 존재도 인의를 알고 양심을 가지면 동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옹정제의 관점에서 사람은 태어난 곳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차별되는 올바른 마음을 가진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이다.

히에로클레스는 로마 제국을 코스모폴리스, 즉 우주 전체와 동일시하면서 로마에 대한 소속감을 세계 시민의 기본 조건으로 전제한다. 히에로클레스가 제시한 연속적인 동심원 비유에서도 자신과 가까운 내부의 원과 먼 거리에 있는 외부의 원을 따로 구별하면서 결과적으로 중심과 주변의 거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태어난 곳을 기준으로 사람과 동물을 구별한 한쪽 지식인 증정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나 자신과 멀고 가까움을 기준으로 세계를 차별적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어난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을 동일한 존재로 인식한 옹정제의 관점에서 히에로클레스의 주장은 로마의 시민을 세계 인류 가운데 가장 안쪽의 동심원에 위치시킨다는 점에서 결코 보편적일 수 없다.

문항 2

[문항 2] 제시문 [다]의 ‘induction’의 의미를 설명하고, 인지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를 비교하십시오. [30점]

문항 2 - 출제 의도

이 문항은 현실에 대한 인간의 인지과정이라는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두 글을 읽고 두 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이 문항은 인간의 인지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사실 파악 능력과 글의 논리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사고를 요구한다.

문항 2 -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 | |
|---------|---|
| 적용 교육과정 |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4] “영어과 교육과정” |
|---------|---|

나) 자료 출처

| 교과서 외 | | | | | | |
|-----------------|---------|----------|------|-------|---------|--------|
| 자료명(도서명) | 작성자(저자) | 발행처 | 발행연도 | 쪽수 | 관련 자료 | 재구성 여부 |
|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 EBS | 한국교육방송공사 | 2020 | 11 | 제시문 [다] | ○ |
| EBS 수능특강 독서 | EBS | 한국교육방송공사 | 2023 | 67-68 | 제시문 [라] | ○ |

문항 2 - 문항 해설

이 문항은 현실에 대한 인간의 인지 과정이라는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두 글을 읽고 두 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다]의 영어 구문과 두뇌활동의 본질로 규정되고 있는 ‘induction’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두뇌활동 중심의 인지과정과 제시문 [라]에서 언급된 새로운 사유의 길로서의 영화와 카메라에 대한 들뢰즈의 주장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야 한다.

제시문 [다]는 EBS 2021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영어영역 「영어독해연습」에서 발췌하였다. 이 글은 인간의 두뇌활동이 현실과 반대되는 여러 가능성을 끌어냄으로써 사고를 하도록 선천적으로 작동한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빨간색 물체를 볼 때 보색인 녹색이 그 주변에 같이 보이거나, 사회의 금기 때문에 오히려 금기시되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주장함으로써 인지활동이 수동적인 학습이 아닌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제시문 [라]는 EBS 2024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에서 발췌하였다. 이 글은 들뢰즈가 이론화 작업을 통해서 의도한 영화에 대한 인식론적인 확대가 현실의 개념이나 관념, 심지어 신체적인 구속을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제시한다. 즉,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대상의 실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각에 감지되지 않는 미세한 실재들

을 포착할 수 있는 영화의 카메라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사유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항은 인간의 인지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사실 파악 능력과 글의 논리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사고를 요구한다.

문항 2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2 | 제시문 [다]의 ‘induction’ 정의 설명 - 두뇌활동의 특성에 따른 인지 과정 - 현실의 현실성을 수용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조 또는 다른 가능성 추구 - 시각인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금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 과정 | 5점 |
| | 제시문 [다], [라] 요약 - 제시문 [다] 요약 - 제시문 [라] 요약 | 5점 |
| |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의 비교 설명 (1)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의 공통점 설명 - 인지 과정을 통찰하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현실/현실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임을 강조 (2)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의 차이점 설명 - 제시문 [다]는 선천적 인지기관인 두뇌활동으로 현실 또는 현실성으로부터 벗어남을 강조 - 제시문 [라] a. 인간의 인지 과정은 대상의 실제적 잠재성을 파악하는 궁극적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으나, 현실 속에서는 개념, 관습, 심지어 신체적 구속 때문에 불가능함 b. 개념, 관습, 심지어 신체적 구속에서 자유로운 영화의 카메라가 인지 과정의 궁극적인 가능성을 실현한다고 강조함 | 15점 |
| |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 5점 |

문항 2 - 예시 답안

제시문 [다]의 ‘induction’ (유도/이끌어냄)이란 인간의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수용하기보다 그것과 대조되는, 또는 반대되는 여러 가능성을 상상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인지 과정이다. 이것은 우리가 빨간색의 물체를 보는, 즉 시각을 통한 인지 활동은 물론 사회적 금기에 반발하는 예로도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전반적인 인지 과정을 의미한다.

제시문 [다]는 두뇌활동의 특징으로 현실로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대조 또는 반대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글은 ‘induction’ 으로 표현된 두뇌활동의 영향이 시각을 통한 인지 과정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대상에 대한 개념화, 또는 사회적

금기에 대한 즉각적인 거부 행동 등에도 나타나며, 따라서 우리의 인지 과정은 선천적이라고 주장한다.

제시문 [라]는 들뢰즈가 새로운 인식의 매개체라는 철학적 지위를 부여한 영화의 카메라가 비록 인간의 눈이라는 시각기관을 따라 만든 것이지만, 개념, 관습, 신체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의 지각으로는 감지되지 않는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드러나는 대상의 실재를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와 [라] 모두 인지 과정을 고찰하면서, 현실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함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즉, 제시문 [다]는 두뇌활동을 통해서 현실과는 대조적인 또는 반대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제시문 [라]는 들뢰즈의 예를 통해 현실성과 대립되는 대상의 실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영화의 카메라처럼 기존의 개념, 관습, 신체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제시문 [다]는 우리를 현실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두뇌라는 선천적인 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현실과는 다른 가능성을 꿈꾸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인지 과정이고 그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시문 [라]는 들뢰즈의 주장처럼 인지 과정은 현실 속 기존의 개념, 관습 또는 신체의 구속 때문에 대상의 미세한 실재를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영화의 카메라도 대상의 실재를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기존의 개념, 관습 또는 신체의 구속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의 지각으로는 감지되지 않는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드러나는 대상의 실재를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시각을 통해 성취할 수도 있는 지각의 궁극적인 가능성을 오히려 영화의 카메라가 실현하는 것이고, 현실의 개념, 관습 심지어 신체적 구속으로부터 탈피해야 우리에게 새로운 사유의 길이 열린다는 주장이다.

문항 3

- (1) 제시문 [마]의 ‘진정한 나’와 제시문 [바]의 ‘참된 자아’에 이르는 길의 차이에 대해 논하시오. [20점]
- (2) 제시문 [바]의 사르트르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제시문 [사]의 ‘남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서술하시오. [20점]

문항 3 - 출제 의도

문항 (1)은 제시문 [마]와 [바]의 주요 개념을 비교하여 논하게 함으로써,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각 글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맥락을 고려하며 읽는 독해 능력과, 주어진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문항 (2)는 제시문 [바]의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제시문 [사]의 작품 속 인물이 처한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로, 응시자의 사실적·추론적 독해력과 작품에 대한 비판적 감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문항 3 -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 | |
|---------|---|
| 적용 교육과정 |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4] “영어과 교육과정” |
|---------|---|

나) 자료 출처

| 교과서 내 | | | | | | |
|----------|---------|-----|------|---------|---------|--------|
| 자료명(도서명) | 작성자(저자) | 발행처 | 발행연도 | 쪽수 | 관련 자료 | 재구성 여부 |
| 독서 | 한철우 외 | 비상 | 2022 | 103-107 | 제시문 [마] | ○ |
| 문학 | 방민호 외 | 미래엔 | 2022 | 76-81 | 제시문 [사] | ○ |

| 교과서 외 | | | | | | |
|------------------------------|-----------|-----------|------|------|---------|--------|
| 자료명(도서명) | 작성자(저자) | 발행처 | 발행연도 | 쪽수 | 관련 자료 | 재구성 여부 |
| 2020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국어영역) | 부산광역시 교육청 | 부산광역시 교육청 | 2020 | 6-7 | 제시문 [바] | ○ |
| 스노우맨 (당분간 인간) | 서유미 | 창비 | 2013 | 8-32 | 제시문 [사] | ○ |

문항 3 - 문항 해설

■ 문항 3-(1)

제시문 [마]는 「독서」 교과서의 인문 분야 독서 단원에 수록된 글로,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둔 교육철학자 손봉호 교수가 마틴 부버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나’와 ‘그’,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해 논한 글이다. 제시문 [바]는 2020학년도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출제되었던 「사르트르와 실존주의」의 발췌문으로, 실존철학자 사르트르의 ‘존재’에 관한 생각을 담은 지문이다. 두 글은 모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철학적 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는 한편, [마]의 진정한 나, [바]의 참된 자아에 이르는 과정에 타자 또는 ‘너’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상이한 시각의 통찰을 담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답안을 작성할 때, 두 글에 제시된 주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 또는 ‘자아’와 관련하여 ‘너’ 또는 ‘타자’에 부여된 의미를 파악하며, ‘진정한 나’와 ‘참된 자아’라는 핵심 개념에 이르는 길의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주어진 자료와 상관없이 실존 철학이나 타자 관련 철학 사상에 관한 단편적 지식을 나열한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게 출제하였다.

■ 문항 3-(2)

제시문 [바]는 2020학년도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출제되었던 「사르트르와 실존주의」의 발췌문으로, 사르트르의 실존철학을 설명하는 글이다.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주요 개념인 ‘즉자 존재’, ‘대자 존재’, ‘대타 존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미래엔)에 실린 서유미의 소설 「스노우맨」의 발췌문으로, 엄청난 폭설로 도시가 파문된 재난 상황 속에서도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을 통해 인간을 소외시키는 현대사회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 폭설이 내린 상황에서도 기계적으로 눈을 파헤치며 회사에 출근하는 ‘남자’의 모습을 통해 인간을 기계와 같은 비인간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경쟁적인 현대사회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이 문항에서는 사르트르의 존재에 대한 개념을 비일상적 재난 상황에서도 맹목적으로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남자의 모습에 적용함으로써 인간을 기계화하는 비인간적인 현대사회의 모순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문항에서는 (바) 글에 드러나 사르트르 실존주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소설 작품에 적용하여 작품 속 인물 및 주제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내용을 종합하여 실제 작품에 적용·분석함으로써 소설의 주제 의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항 3 - 채점 기준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3-(1) | <p>제시문 [마]의 진정한 ‘나’에 이르는 길 파악</p> <p>- 아래 구절들을 포함하여 진정한 ‘나’에 이르는 길을 설명함</p> <p>[예] ‘나’와 ‘너’의 관계, 주체와 주체의 관계, 동격 관계, ‘나’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 ‘나’에게 반응을 보이는 존재 등</p> | 5점 |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 제시문 [바]의 ‘참된 자아’에 이르는 길 파악 - 사르트르가 언급한 ‘즉자 존재’, ‘대자 존재’, ‘대타 존재’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내용 -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타자의 시선을 극복하고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 5점 |
| | 제시문 [마]의 ‘진정한 나’와 제시문 [바]의 ‘참된 자아’에 이르는 길의 차이 서술 - 제시문 [마]에서 진정한 ‘나’에게 이르기 위해 타자와의 관계를 필수적인 것으로 본 반면, 제시문 [바]에서 ‘참된 자아’에 이르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타인의 시선을 극복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내용 - ‘진정한 나’에 이르는 길에 대해 제시문 [마]의 “‘너’를 통해”, ‘참된 자아’에 이르는 길에 대해 제시문 [바]의 “자신의 선택”을 통해”라는 내용을 근거로 서술 | 5점 |
| |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 5점 |
| 3-(2) | 제시문 [바]의 내용 이해 -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즉자 존재’, ‘대자 존재’, ‘대타 존재’ 개념을 이해함. - 사르트르가 주장한 주체적 존재의 태도를 이해함. | 5점 |
| | 제시문 [바]의 사르트르의 관점을 [사]에 적용하여 분석하여 주제를 파악 - ‘남자’는 회사 상사들에 의해 무능한 직원이라는 ‘대타 존재’로 객체화되고 있음. - ‘남자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삼으로 눈을 파는 모습, 눈사람의 웃는 모습을 흉내내는 모습에서 ‘대자 존재’에서 ‘즉자 존재’처럼 기계화되고 있음. - 남자는 경쟁 사회에서 기계적인 노동을 하며 무비판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음. - 소설은 인간을 부품처럼 비인간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현대 문명 사회를 비판함. | 10점 |
| |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 5점 |

문항 3 - 예시 답안

■ 문항 3-(1)

제시문 [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나’가 맺을 수 있는 기본적 관계는 ‘나’와 ‘그것’, ‘나’와 ‘너’의 둘뿐인데,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차등 관계인 반면,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이다. 이에 근거해 볼 때, 객체로서의 ‘인간’을 이해하는 것과 주체로서의 ‘나’를 이해하는 일은 같을 수 없으며, 진정한 ‘나’에 이르려면 ‘나’와 대등하며 유일한 존재인 ‘너’와의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제시문 [바]에서 사르트르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의식을 가지지 않는 사물 존재인 ‘즉자 존재’, 그리고 자기의식을 가지는 인간 존재인 ‘대자 존재’로 구분하고, 의식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을 ‘대타 존재’로 다시 명명하였다. 이때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인간은 타자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대신 이

를 극복하고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제시문 [마]와 [바]는 ‘너’ 또는 ‘타자’에 대한 의미 부여에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마]의 ‘진정한 나’에 이르기 위해서는 ‘너’라는 타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의 반응이 필수적인 반면, 제시문 [바]의 시각에서 볼 때 타자의 시선과 반응에 좌우되는 대타 존재에 머물지 말고 타자의 시선을 극복하며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갈 때 비로소 ‘참된 자아’에 이를 수 있다.

■ 문항 3-(2)

제시문 [바]의 사르트르는 세계의 모든 존재를 의식의 유무에 따라 ‘사물 존재’와 ‘인간 존재’로 구분하고, 사물 존재를 ‘즉자 존재’, 인간 존재를 ‘대자 존재’로 명명하였다. 그는 즉자 존재는 자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인 상태로 남아 있다면, 대자 존재는 자기의식을 지니기에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여 바라볼 수도 있고,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인간 존재는 주체성을 지닌 대자 존재이면서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대타 존재이기도 하다고 설명하며, 인간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타자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사]의 ‘남자’는 사상 최대의 폭설로 회사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회사 상사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추위와 피로에 지쳤음에도 삼으로 눈을 파헤치며 회사로 향하고 있다. 이때 남자는 부장과 과장의 시선에 의해 회사 내 무능한 직원으로 규정되는 대타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출근을 위해 기계처럼 삼질을 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회사 내 부품으로 객체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그는 편의점 앞에서 있는 눈사람의 웃는 입 모양을 자기도 모르게 흉내 내고 있는데, 이는 즉자 존재처럼 취급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폭설과 상관없이 웃고 있는 눈사람의 모습은 재앙 같은 폭설 속에서도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기계적인 삼질을 하는 남자의 모습과 겹쳐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극심한 경쟁 속에서 인간이 사물화되는 현상은 사르트르가 말한 대자 존재로서의 인간이 즉자 존재, 즉 비인간화됨을 보여주고 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타자의 시선을 극복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소설 속 남자는 자신을 몰화시키는 현대사회에 저항하지 못하고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리하면, 이 소설은 폭설이라는 재앙적 상황에서 사물화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을 소외시키는 폭력적 현대 문명을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